

25년전 시위현장 화염병 피해 아픔 딛고 공무원의 삶 광주 북구청 도미선 씨

광주도시공사, 보육시설 어린이 초청 문화나눔

“화상의 고통, 치료제는 ‘긍정의 힘’이었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일찍 눈을 뗄었으면 좋겠어요.”

25년 전 등교 중 시위 현장을 지나다가 날아온 화염병에 중화상을 당한 여중생이 공무원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광주 북구청 교환실에서 근무하는 도미선(39)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89년 11월 광주 북구 중 흥동 옛 민정당사 앞 정류장에서 등굣길에 사고를 당했다.

도미선은 “사람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했는데 어 디선가 갑자기 데모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사람들 말로는 벽에 화염병이 부딪치면서 액체가 나에게 흘러 불에 탔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중화상을 입은 도미선은 처음 한 달 동안 진통 주사를 하루에 7대씩 맞아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침상에 누워서 손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문제를 듣고 입으로 대답하며 고인 시험을 치렀지만 결국 국수 차례의 수술 터에 휴학을 해야 했다.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려던 도미선의 아버지는 “국 가 상대 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으니 가해 학생을 찾아 소송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권유에 소송도 포기했다. 아버지는 “가해학생을 찾는다 한들 자식 같은 젊은 아이 인생을 망치게 될 텐데 응서하자”며 팔을 설득하기도 했다.

도미선은 ‘긍정의 힘’과 희망으로 버텼다. 도미선은 사과하려 온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언니·동생’이라 부르며 응서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역경은 계속됐다. 도미선은 얼굴의 상처로 사범대 면접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교사의 꿈을 접고 사학을 전공했다. 아

중3 등굣길에 화염병 맞아

수십 차례 수술로 휴학 반복

2002년 북구청 일용직 채용

무기 계약 전환 교환실 근무

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집마저 남에게 넘어가더는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도미선은 날마다 활동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를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휴학 때문에 중학교 동기들이 졸업반 선배가 돼 있었던 대학에서 그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이루려고 학업에 열중하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용모 단정’이라는 조건에 가로막혀 그 훌륭한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못

했고 전자공장 면접에서는 손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 등 갖가지 자격증도 입사시험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도미선은 2002년 광주 북구청에 일용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지난해 정규직(무기계약) 신분으로 전환됐다. 도미선은 “사고로 많은 보상을 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잘 때문에 부자 됐겠다’는 말을 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막대한 치료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내 꿈은 물론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어려서는 살기 위해 쌔웠고 18살부터는 남들이 평범하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최소한 배 이상 노력하며 살아야 했다는 도미선은 “나 역시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없었다면 지치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가족들의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 그 착잡한 심정이 이해가 돼 안타까웠다”며 “단순히 예산 운운하기보다는 범죄 피해자나 소외계층 등 법과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 등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는 최근 광주 금남로4가역에서 열리는 ‘파충류 & 희귀동물 체험전’에 신애원 및 애율원 어린이 40명을 초청하는 문화나눔 행사를 가졌다.

호남대 랠랄라스쿨 ‘로봇만들기’ 개강



광주시교육청 지역사회연계 순회강사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호남대 랠랄라스쿨(단장 정영기)이 지난 4일 광주 조봉초등학교에서 ‘단위학교 방과후프로그램 - 로봇만들기’를 개강했다.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비전 선포식’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이희승)는 지난 3일 오후 광산 캠퍼스 상하관 소강당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광주시는 5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5개 자치구와 한국청소년인권센터 등 6개 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 U대회 홍보방송본부장에 박현정씨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3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홍보방송본부장에 다년간 KBS 스포츠프로듀서를 역임한 박현정(59)씨를 임용했다.

박현정 홍보방송본부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KBS에 공채로 입사, 음집Pic·월드컵 등 각종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기획, 제작, 중계연출 등 방송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홍보방송본부장은 앞으로 광주U대회 브리핑을 위한 홍보·보도·총괄 기획과 함께 국제방송신호 제작·송출, 국제방송센터(IBC) 및 메인프레스센터(MPC)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체희증기자 chae@

목포대 최일 총장 취임



목포대 제7대 최일 총장 취임식이 지난 5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취임식은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대학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고 내실있게 치러졌다.

최 총장은 새로운 대학 발전을 모색하고자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설명회와

함께 대학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교직원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 총장 임기는 3일부터 4년간이다.

신나는 직원, 열려 있는 총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포대 건설을 목표로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 추진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990년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로 임용된 그는 산학협력단장, 공과대학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총장 직선제 폐지 후 첫 간선제 총장으로 당선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상호금융대상’ 전국 1위 남평농협 등 전남 16곳 선정



나주 김수곤, 토지보상금 장학금 청탁



나주시 다도면에 거주하는 김수곤(93·맨 오른쪽) 응이 토지보상금으로 2년 연속 거액의 장학금을 청탁해 화제다.

김 응은 나주호 둑놀이가 공사로 문중 소유의 농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일부를 떼 ‘나주시 교육을 위해 쌀달라’며 지난해와 올해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청탁했다. 앞서 김 응은 지난 1978년부터 10년 동안 남평·다도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수곤 응은 “선대의 정신을 후대에 가장 뜻있게 전달하는 방법이 학생들을 돋는 것이라는 문중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 최우수상: 나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나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 우수상: 산포농협, 수북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 장려상: 금천농협, 고서농협, 거금도농협, 도포농협, 다파농협, 팔영농협, 월출산농협, 삼계농협, 대전농협, 안양농협

▲ 상호금융대상: 남평농협

▲ 최우수상: 남주 배원예농협

▲